

4월 농식품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싱가포르]

1. 농림수산물 수입통계

□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 싱가포르 달러)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 (%)
	금액	금액	
농림축수산물	13,741,278	16,007,264	16.49
농 산 물	9,371,434	11,224,875	19.78
축 산 물	2,796,374	3,036,783	8.59
임 산 물	104,907	117,591	12.09
수 산 물	1,468,563	1,628,015	10.86

자료 : IE Singapore Statlink 수출입통계자료

□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 천 싱가포르 달러)

품목 HS코드 *생략가능	'11.1~3	'12.1~3	증감%	1위		2위		3위		한국산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금액
딸기	9,227	9,189	-0.41	한국	6,864	미국	1,413	이집트	690	6,894
인삼	3,259	2,250	-30.96	한국	696	북한	519	미국	388	696
라면	9,807	9,346	-4.7	말련	3,302	중국	1,832	태국	1,150	743
커피조제품	23,278	26,496	13.82	인니	13,179	프랑스	4,265	말련	2,271	1,758
버섯류	7,402	8,074	9.07	말련	3,223	중국	2,290	태국	593	408
맥주	36,990	38,530	4.16	말련	12,136	네덜란드	5,216	인도	3,860	1,793
막걸리	-	190	-	일본	126	중국	38	한국	26	26
소스류	32,171	33,982	5.62	말련	11,760	일본	5,857	미국	4,000	355
김	1,124	1,196	6.40	중국	578	일본	252	한국	157	157

자료 : IE Singapore Statlink 수출입통계자료

□ 소비 동향

- 싱가포르는 농수축산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로 싱가포르 정부 자국생산 확대 계획을 '11에 발표한 바 있음.

- 현 생산 :전체 소비 중 녹색채소: 7%, 수산물: 4%, 계란 23% 자국 생산
- 목표: 전체 소비 중 녹색 채소:10%, 수산물: 15%, 계란 :30% 자국 생산 계획

□ 향후 시장 전망

- 한류로 인한 소비자 노출빈도 확대로 소스류, 면류, 커피류, 음료류 등의 유통매장 입점 및 상설코너 운영 확대
 - 막걸리 및 복분자주 등의 전통주류 현지 대형유통매장 판촉으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팽이버섯을 중심으로 대형유통매장 입점 판매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새송이 버섯도 고급 식자재로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
- 인삼세미나 및 기타 인삼 홍보 효과로 한국 인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이슈현안: 인도네시아 유통부문 현황

□ 트렌드

- 인도네시아는 1998년에 유통부문의 시장을 개방한 이후, 유통부문에서 하이퍼 부문은 외국계, 슈퍼 부문은 토종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세계 155위의 낮은 개인소득에도 불구하고 ; 인구 2.5억의 거대시장 그리고 신흥강대국 BRICS (Brazil, Russia, Indonesia, China, South Africa) 의 일원으로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는 점 등에서 비롯됨.
- 인도네시아 경제는 수출주도형이 아닌 내수주도형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에도 6~8%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음. 현대적 유통점의 특징인 편리성과 인도네시아 경제의 특징인 안정적 성장이 어우러지면서, 유통부문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유통부문 추세

-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까지는 재래시장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태임. 동 현상은 개인당 소득이 낮은 요인 이외에, 광활한 지역에 따른 현대적 유통점의 확대 지연 등에 기인 함.

<인도네시아 재래시장 대비 현대적 유통점 시장 점유율 변화>

	2000	2005	2010	2011
재 래 시 장	79%	74%	63%	62%
현대적 유통점	21%	26%	37%	38%

(자료 : AC Nielsen)

- 현대적 유통점 분야에서 : 하이퍼부문은 외국계기업이 각축하는 속에서 토종기업인 Hypermart (Matahari)가 고군분투하는 양상이며 ; 슈퍼부문은 토종합작기업인 Hero가 선도하는 속에서 토종기업들이 경쟁하는 양상임.

<2011년도 인도네시아 현대적 유통점 분야별 분석>

부 문	시장 규모	점 포 수	업 체 명 *	점유율
하이퍼	USD 519 억	226	Carrefour (프랑스)	44%
			Hypermart	26%
			Giant (홍콩)	19%
			Lotte (한국)	11%
슈 퍼	USD 341 억	1,626	Hero (합작-Giant)	33%
			Superindo (합작-벨기에)	22%
			Ramayana	21%
			Foodmart	7%
			Yogya	7%
			Carrefour Express (프랑스)	4%
			Ranch Market	3%
			기 타	3%
미니 마트	USD 220 억	16,922	Indomart	43%
			Alfamart	41%
			기 타	16%

(자료 : Jakarta Globe, Bisnis Indonesia, PEFINDO)

* 국가표시가 없는 경우는 인도네시아 기업임

□ 제약 요인

- 한국에서도 추진 또는 입법화 되고 있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강제휴일 등과 마찬가지로 : 인도네시아 또한 재래시장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제한 법안을 제정 하였음.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대적 유통점 관련 법안>

법 안	주요 내용
자치법안 No.2/2002	재래시장과 신규 현대적 유통점과의 최소거리 지정
대통령령 No.112/2007 산업장관령 No.53/2008	현대적 유통점의 가능입지 지정
대통령령 No.111/2008	외국계 유통점의 최소매장면적 지정

(자료 : Bisnis Indonesia)

□ 전 망

- 인도네시아는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현재진행형인 국가로, 소득증대에 따라 현대적 유통점은 향후 연평균 12%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됨. 인도네시아의 소매분야, 그리고 하이퍼 및 슈퍼의 매출통계 및 전망 등은 다음과 같음.

(단위 : USD 억)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매 전체	2,924.0	3,419.0	3,792.0	4,191.0	4,639.0	5,130.0
하 이 퍼	432.7	519.7	582.1	651.9	730.1	817.7
슈 퍼	284.5	341.7	382.7	428.6	480.1	537.7
미니마트	183.9	220.9	247.4	277.1	310.3	347.5

(자료 : Business Monitor, AC Nielsen, FAS 종합)

(자료원: CIA World Factbook, Global Finance, BPS, AC Nielsen, Jakarta Globe, Bisnis Indonesia, FAS, Business Monitor, PEFINDO, Reuters, Carrefour, Hero Group, Matahari Food Business, Lotte Shopping, Antara News)

3. 품목 동향 : 베트남의 채소/과일 종자시장

□ 개요

- 세계 종자산업시장은 연평균 5%대의 성장률을 기록 중으로, 2010년 현재 USD 698억의 규모를 달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USD 1,650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더불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UPOV) 협약의 가입국가가 확대되면서 보이지않는 특허 및 특허료 전쟁이 가열되고 있음.
- 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직전에 GDP기여율 21%대, 전체노동자의 54%가 종사하고 있는 농산분야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농산분야의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Decision No. 52/2007/QD-BNN을 발표하고, 채소과일연구소 (FAVRI) 발작물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및 종자무역협회 (VSTA) 등을 설립함. 2011년 현재 종자연구 및 배양기관이 전국 24개 기관으로 확대가 되었지만, 주요 농산 수출품인 쌀 이외에는 종자의 개발이 미진하여, 채소 및 과일 종자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채소 및 과일 수출독려 대비 종자산업 지원책

- 베트남은 해마다 채소 및 과일 수출목표를 의욕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 여전히 채소 및 과일의 종자보급에는 부진함을 보이고 있음

<베트남의 채소 및 과일 수출통계>

(단위 : USD, 억)

	2007	2008	2009	2010	2011	2020
목 표	2.7	3.6	4.6	4.8	4.7	12.0
실 적	3.1	4.1	4.4	4.7	6.0	-

(자료: MARD)

<베트남의 주요 종자 생산 및 보급 현황>

	수 요	종자 관련 기관	농가 자체	수 입
쌀	90만톤	15%	85%	-
옥수수	1.7만톤	62%	-	38%
채 소	0.5-1만톤	18%	-	82%

(자료 : Vietnam Seed Trade Association, VNN 종합)

○ 종자의 수입대상국가 및 베트남 종자수입 업체

- 국제시장에서 유통되는 종자의 원산지는 배양, 처리, 판매 등의 단계가 상이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원산지의 확인에는 어려움이 많음. (Worldseed.org)
- 베트남 종자무역협회 (VSTA)에서 발표한 주요종자의 수입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음.

	중국	태국	대만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독일	이태리	프랑스	네덜란드
쌀	XX					X						
옥수수		XX				X						
감 자	XX								X			X
겨 자	X	X					XX	X		X		
오 이		XX		X								X
여 주		XX										
수 박		XX	X									
토마토	X	XX	X	X	X	X					X	
양배추		X	X		XX							
고 추	X	X		XX								

(자료 : VSTA)

- VSTA 회원업체는 약 40여개 업체이며, 상위 10대 종자수입업체는 다음과 같음

	회 사 명	시장 점유율 (쌀 제외)
1	Angiang Plant Protection Service JSC	10%
2	Bioseeds Genetics Vietnam	12%
3	Consulting & Investment Company	14%
4	C.P. Seeds (Vietnam) Co Ltd	21%
5	East - West Seed (Vietnam) Co Ltd	n.a.
6	National Seed JSC (Vinaseed)	7%
7	Saigon Pesticide JSC	11%
8	Southern Seed Corporation	19%
9	ThaiBinh Seed JSC	n.a.
10	Trang Nong Seeds Co Ltd	n.a.

(자료 : VSTA)

□ 전망 및 의견

- 베트남은 2006-2010 경제계획연도에 베트남 종자산업의 발전 위하여 총 19개 프로젝트에 VND 2,680억 (약 USD 1,200만)의 예산을 투자하였지만, 여전히 쌀 위주의 연구개발로 진행이 되어 ; 2011년도에도 채소 및 과일 종자의 80-85%를 수입에 의존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발작물연구소 (FCRI), 종자협회 (VSA), 식물배양부 (PCD) 등이 주요 종자의 확인 및 생산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 종합전략의 수립할 주체가 없어, 종자의 자급자족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임.
- 한국의 2010년에 전체 종자시장규모는 USD 4억, 종자수출금액은 USD 2,300만으로 세계시장규모인 USD 698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상태 임. 희망적 소식으로, 2002년 UPOV 가입, 2010년 UPOV 발효 등을 앞두고, 2009년부터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은 종자시장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하여 : 2011년 총액 3,985억원이 투자되는 “골든시드 (Golden Seed)”사업에 착수함.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까지 전북 김제에 53만㎡의 Seed Valley를 조성 중에 있으며, 최종 목표는 2020년에 종자수출액 USD 2억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임.

(자료원 : International Seed Federation, UPOV, VinaFruit, Vietnam Seed Trade Association, Asia Pacific Seed Association, Vietnam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Fruit & Vegetable Research Institute, Bio통신, VNN, 한국종자협회,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